

[1~6] - 2010.11 [32~37]

복합지문 답게 <보기>가 2개네요! 둘 다 체크해보고 갑시다.

<보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승무’ 라는 시는 무녀의 춤을 보여주는 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빛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빛들이 무녀의 춤을 초점화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으면 되겠네요.

<보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면앙정가’에서는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고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습니다.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했다는데, 그럼 의인법이 쓰였나봐요! 어떤 놈이 그런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가)

얇은 사(紗)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며.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화자 - 상황 : 무녀의 춤을 보고 있음, 밤
- 반응 : 서러움

일단 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기>가 없었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1~2행은 <보기>에 따르면 무녀가 춤을 추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는데 두 불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 서럽습니다. 화자는 서러워요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이랍니다. 시간은 밤이네요. 밤에 무녀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 뒤에는 계속 무녀의 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들어 별빛을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녀가 춤을 추고 있는 밤에 화자가 서럽다! 이것만 얻었으면 됩니다. 다음 시 봅시다.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뼈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뼈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뼈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삻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삻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발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삻꼭새」-

* 길뜰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화자 - 상황 : 삻꾸기가 지리산에서 울고, 그것으로 섬이 생기는 등 다양한 일이 벌어짐, 봄
- 반응 : 서러움

삻꾸기가 떼로 울고 있대요. 그러다가 석석 삼년도 봄을 다 넘겨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ㅎㅎ) 설움에 맛이 들고, 사실은 그게 한 마리의 삻꼭새임을 알았다네요. 이게 뭘 개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화자는 서러운거봐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네요!

이제 지리산 이라는 실제 지명이 나옵니다. 지리산 하에서 한 마리가 울면 여러 마리가 울고, 그게 지리산 중으로 가면 강이 열린답니다. 그게 섬진강이었어요! 그 섬진강이 섬들을 밀어 올리고 있네요. 뭔가 나비효과 이런걸 말하고 싶은거 같기도해요. 그냥 제가 하듯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대단한 능력 없이 가능하잖아요? 아무튼 봄 하룻날 그 눈물을 다 흘리면 지리산 하에 있던 삻꼭새 울음이 서러운 빛깔로 남아 철쭉꽃발을 다 태운답니다. 도대체 뭘 소린지 알 순 없지만, 화자는 서러운가 봐요 계속. 그냥 이 정도 잡아주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 해석은 선지에서 다 해주고 있을거예요.

(다)

무등산 한 활개 뒀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꽃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화자 - 상황 : 자연 묘사

- 반응 : 딱히..

일단 이 시는 처음에 무등산, 제월봉, 무변대야 등 장소를 체크하다가 포기하게 될겁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결국 한 장소를 보고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은 딱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자연이 어떨다 어떨다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현대어처럼 읽다 보면 내용 이해는 될거예요! 근데 단어 하나만 알아둡시다. '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고전 시가에서 '하다'는 현대어처럼 'do'의 의미도 있지만 '많다'로 더 많이 쓰입니다. 특히 '하도 할사'는 '많기도 많다' 정도로 해석이 돼요. 이걸 외워둡시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자연을 보고 (<보기>에 의하면 면양우주겠쬬) 묘사하고 있다..! 그곳에서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고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여기서도 당연한 선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시는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낸 문학이예요. 따라서 감각적 이미지는 반드시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으니, 운동감만 찾아봅시다. (가)에서는 무녀가 열심히 춤추고 있었고, (나)에는 섬을 들어 올리고 했었죠. (다)에서는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등에서 운동감이 자주 등장했구요!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나머지 선지도 살펴봅시다. 단호한 어조는 그냥 확실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으면 돼요. (나)시 정도면 단호한 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했다. ~보았다. ~였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의지는 확실히 아니예요. 의지라는 건 엄청난 반응이기에 있다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상황과 반응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못 볼수가 없을 정도예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없고, 대립적 시각이나 역설적 표현도 딱히 없었으니 (고와서 서러워라 정도는 되겠네요.) 확실하게 3번이네요!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이 문제에서 혹시 3~5번 중 하나를 고르셨다면 반성하세요. 아직 '허용 가능성 평가' 라는 문학의 대원칙을 습득하지 못하신 거예요. 일단 1번은 쉽게 허용이 됩니다. 상황이 밤이었던 거 맞고, 밤이니까 빛이 잘 보여서 관객의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나가다가 3번 선지에서 많은 학생들은 가우뚱 합니다. 오 그럴 듯한데...? 4번에서 초탈.. 승화... 5번에서 눈과 연결.. 지향세계와 내면세계...

개멋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원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멋있어서 그 중 하나가 틀린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3~5번 중에 하나를 고르셨다면 최악입니다. 사실 세 선지 전부 말은 어렵지만 딱히 틀린 말이 아니예요. 녹아내리고 기우는 건 하강 이미지 맞으니까 유한한 인간 존재와 연결될 수 있고, 초탈의 세계가 승화의 의미로 이어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딱히 틀린 걸 못 찾겠죠? 그럼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5번. 문학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그걸 '지향' 한다는 의미예요. 별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별빛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향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 주고 있다고 하면, 또 딱히 틀린게 없네요.

그런데 2번 선지를 보세요. '흐르는 빛'이 상승 이미지입니다. 이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사전에서 '흐르다'를 검색해보세요. 누가 봐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6평, 9평 문제지에서는 허용의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허용이 안된다! 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 기준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가)와 (나)의 반응이었던 '서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하나 봅시다. 역사적인 삶의 경험은 지문에서도 <보기>에서도 나온 적이 없으니 1번은 나가리고,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도 나오질 않았으니 2번도 나가리네요. (주술적 속성이 있다고 하려면 뱀꾸기의 울음이 병을 치유한다든지 그런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야해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찾아 볼 수 없었고, (가)와 (나) 모두 각각 무녀, 뱀꾸기라는 외부 대상에 의해 생성된 정서네요.

그럼 남는건 5번이네요. 이 선지가 재밌는게, 평가원의 허용기준을 알려주는 선지였어요. (가)에도 귀뚜라미의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가 없고, (나)에도 철쭉꽃 자체의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평가원은 귀뚜라미, 철쭉꽃이라는 어휘 만으로도 각각의 소리와 색채를 드러낸다고 허용해버린거죠! 실제로 귀뚜라미라는 시어를 보면 자연스레 귀뚜라미 소리가 떠오르고, 철쭉꽃이라는 시어를 보면 그 특유의 보랏빛이 떠오르죠. 이런건 딱히 틀린게 아니니 허용해주는 겁니다. 조금 헛갈리겠지만 앞으로 다른 기출들도 계속 풀어보시면 감이 잡힐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나) 시에 대한 단독 문제네요. 1번 선지부터 봅시다.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석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겼다고 했으니 허용이 되겠네요. 2번 선지! 지리산 하에서 실제의 뼈꼭새가 울면 그게 결국 여러 마리의 뼈꼭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반되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절대 허용이 안되겠네요.

3번은 쉽게 허용이 될거고, 4번, 5번이 바로 전형적인 ‘허용가능한 선지’입니다.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절대 생각못해요. 그래도 저걸 보고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허용!’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기준을 계속해서 생각해주세요!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울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직유법은 ‘~처럼, ~한 듯, ~같은’ 등을 사용한 비유법을 말합니다. [A]에는 없고, [B]에는 있죠? 자연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구요. 직유법을 알았다면 쉽게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2번 선지의 음보울은 내신에서 하듯이 3음보 4음보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뭔가 규칙성이 있으면 허용해주면 됩니다. 둘 다 ~넘기고, ~한 듯 등을 이용한 음보울이 있네요. 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처럼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대표되는 어순을 뒤집어 놓은 걸 말합니다. 반어와 냉소 둘 다 없으니 4번도 틀렸고, [A]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영탄적 표현이 없으니 5번도 틀렸네요. 참고로 ‘우러곰 좇니느뇨’는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뇨는 의문형 종결어미거든요. 일종의 설의법으로서 작용하는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개념어 공부는 게을리 하지 마세요!

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장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정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쉼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자 이제 자연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크게 알 수 있던 것이 없었던 (다) 시의 단독문 제입니다. 각 선지들을 평가해봅시다. 일단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 하노라' 라는 표현에서 이상을 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나요? 그냥 보면 애매하지만, <보기>에서 자연물(무변대야)에 의지를 부여했다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이 되겠네요! 무변대야의 뜻이 '끝없이 넓은 들판' 이니, 끝없이 넓은 이상을 펼치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2번 선지. 조바심은 지문에서도 <보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허용이 안되겠네요. 그냥 자연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빨리 이거 달성해야돼!' 라고 볼 건덕지가 하나도 없네요. 답은 쉽게 2번. 그 외 3,4,5번 선지 모두 지문만 보면 크게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보기>를 토대로 보면 허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허용의 포인트가 조금씩 잡히시죠? 선지를 평가해보는 버릇을 계속 들여보세요. 점점 오답과 정답 사이의 경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 문제들은 평가원 문학의 기본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매우 좋은 문제들입니다!! 많이 복습해주세요.